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60마리 고향으로 '힐힐'

〈호주〉

인공 모래섬 설치로 안정적 종 보존 26개 둥지서 새끼 71마리 태어나 안동호 상류와 연계 생태관광 계획



안동호 영구적인 인공 모래섬 설치로 안정적 종(種) 보존 기여 한다. /안동시

경북 안동시 안동호 인공 모래섬에서 태어난 쇠제비갈매기 새끼들이 성장해 호주 등지로 떠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께 태어난 쇠제비갈매기 새끼 71마리 중 61마리가 무사히 어미새로 성장한 후 최근 이곳을 떠났다.

새끼 중 5마리는 수리부엉이와 왜가리 등 천적에 의해 희생되고, 4마리는 자연 폐사, 1마리는 사람에게 의해 희생됐다.

안동시가 인공 모래섬에 설치한 태양광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지난 5월 22일 처음으로 쇠제비갈매기 새끼가 탄생한 데 이어 26개 둥지에서 새끼 71마리가 태어났다.

둥지 속 새끼들이 어미 품속에 안겨

있거나 빙어를 통째로 삼기고, 어미가 물에 적신 몸으로 더위로부터 새끼를 식혀주는 장면 등도 포착됐다.

하지만 산란 이후 새끼가 성장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어미새들은 낮이면 천적인 매, 왜가리, 까마귀 등으로부터 새끼 보호를 위해 수십 마리씩 집단으로 날아올랐다.

특히 야간에는 '밤의 제왕'으로 알려진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호·멸

종위기야생동물 2급) 출현이 새끼들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다행히 안동시가 인공모래섬에 설치한 은신처용 파이프(지름 12cm·가로 90cm) 35개가 새끼들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전국 처음으로 쇠제비갈매기 서식처 보호를 위해 안동호 안에 1000㎡ 규모의 영구적인 인공 모래섬을 조성했다.

물에 뜨는 드립통 1800개로 만든 인공섬 위에는 마사토 160t을 깔았다.

멸종위기종 쇠제비갈매기는 호주에서 1만km를 날아와 4~7월 한국과 일본, 동남아 등 바닷가 모래밭에서 서식한다.

내륙 민물호수인 안동호 내 작은 모래섬에서는 2013년부터 쇠제비갈매기들이 찾아왔다.

지난해 안동호 수위 상승으로 모래섬이 사라지면서 번식에 어려움이 닦쳤지만 올해 초 영구적인 인공 모래섬을 조성하면서 안정적인 종(種) 보존이 가능하게 됐다.

권오구 환경관리과장은 "태어난 곳에 다시 돌아오는 습성이 있는 쇠제비갈매기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기존 서식지를 더 확장하고 도산서원 등 안동호 상류와 연계한 생태관광 자원화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 동네방네



경북도 코로나 대응 화장실 편의대책

경북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속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해수욕장 등의 공중화장실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들의 쾌적한 휴가를 위해 8월 31일까지 도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편의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점검 및 편의대책은 23개 시·군별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편의대책을 수립·추진하고 도에서는 주요 해수욕장,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휴가철 관광객 이용객이 증가하는 공중화장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의 공중화장실 세부 지침 이행여부 점검을 통한 질병 및 감염병 사전예방 대책, 위생·청결 및 시설 안전 등 이용자 편의 증진대책, 다중이용시설 방문객 증가에 따른 화장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화장실 확충 및 탄력적 운영 등 휴가철 화장실 운영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한다.

/경북=문봉현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극복 의료인 초청 감사 이벤트를 진행했다.

“헌신적 치료 감사드립니다”

의료인에 경북 여행 서비스

전국 의료인·가족 592명에 경북관광 경주·포항지역 가족단위 개별 여행

경북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 당시 하던 시기에 경북지역 감염자 치료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의료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파견된 의료인과 가족을 초청해 경북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로나19 경북지원 의료인 초청 경북관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국 각지에서 경북으로 파견된 의료인 440여명 중 경북관광 서비스 참가 신청을 한 188명(가족포함 59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북여행 지

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1차로 152명(의료인49명, 가족103명)의 의료진과 가족이 7월 10일~11일 양일간 경주·포항지역을 중심으로 가족단위 여행을 시작했다. 11일에는 경주 라한호텔에서 경북지원 의료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감사의 표시를 담은 감사패도 전달했다.

이번 코로나19 경북지원 의료인 초청 경북관광은 의료인 대상으로 사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족단위 개별여행과 단체 패키지 여행을 병행해 추진한다. 단체 패키지 여행은 유네스코 중심의 경주 불국사와 포항 죽도시장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탐방코스를 제공한다. /경북=문봉현 기자

‘집콕을 풍성하게’... 대구 섬유교실 운영

대구섬유박물관 7~8월 프로그램

대구섬유박물관은 오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성인대상 섬유교실을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 2개반으로 운영되며, 재봉수업 소잉팩토리 입문반 및 초급반, 모던한복 만들기, 기초 프랑스 자수, 코바늘 손뜨개 특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소잉팩토리 입문 및 초급과정’은 대

구섬유박물관과 '부라더미싱 소잉팩토리'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포켓만들기부터 런치백, 앞치마들기 등 10여가지 소품을 제작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기초부터 부자재 활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참가자들은 부라더미싱의 소잉팩토리 체험키트를 40%할인된 가격으로 체험할 수 있다.

/대구=문봉현 기자



경북도청

경북 노후 공공건축물 80여동 리모델링

경북도가 올해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어린이집 등 80여동에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된 낡은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고성능 단열창호와 고효율 환기시스템, IT 시설 등을 갖춰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공기질도 개선하며 정보화 기반도 구축하고자 추진된다.

경북도내에는 어린이집 45동, 보건소 116동, 의료기관 13동으로 총 174동이 사업대상이다.

올해는 시설개선이 시급한 80여동에 대해 총 사업비 336억원(국비 236억

원, 지방비 10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지난 2일부터 대상건축물을 사전조사 중이며 15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후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0여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문봉현 기자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 물놀이장 /경북도

경북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경북도는 여름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수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바다분수, 물놀이 조합놀이대,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경북도내 바다분수 등 99여개소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공공기관 및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시설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에 대해 수경시설 운영 및 수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질검사주기(15일마다 1회이상) 준수 및 수질검사 적합 여부, ▲저류조 청소실시 여부, ▲수심 30cm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적정 여부 등이다. /경북=문봉현 기자

안동시 코로나 확산방지... 물놀이장 운영 취소

강변시민공원 어린이물놀이장

받아왔다.

안동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매년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운영하던 강변시민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운영계획을 취소한다고 12일 밝혔다.

성희하고 앞 낙동강 둔치의 강변시민공원 어린이물놀이장은 매년 여름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하여 이용객들의 큰 사랑을

안동시는 올해 일부 시설을 보완, 재정비하여 보다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야외 물놀이장 특성상 이용자 간 밀집도가 높고 출입통제의 어려움이 있으며 주된 이용객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어린이란 점을 고려해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을 취소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야외 물놀이장 운영을 취소, 연기하거나 보류한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